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라

사도행전 **21:17-26 KRV**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알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 된것을 고하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세대가 하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모든 세대는 좋은 나쁜 총격적인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 안에서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면 놀라지만 합니다.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1980년대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랄 때는 김치가 부끄러운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치는 한국 가정에서는 거의 모든 식사 때 먹는 반찬입니다. 밥과 김치는 거의 모든 식사의 기본이었고, 점심이나 저녁이나에 따라 다른 반찬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치와 함께 한국 식탁의 또 하나의 기본 음식은 된장국 또는 된장찌개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미소 수프(miso soup)라고 알지만, 사실 미소 수프는 일본식 된장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 김치와 된장국을 우리 부모님은 미국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때마다 최대한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백인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친구들이 항상 "왜 네 집은 발 냄새가 나?"라고 말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친구들은 더 심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샌드위치나 햄버거 같은 평범한 미국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치와 된장 때문에 집 안 전체가 냄새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26년, 저는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발표한 미국인을 위한 공식 식생활 지침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장 건강(Gut health): "장에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와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과 건강한 소화를 돕습니다. 고도로 가공된 음식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지만, 채소, 과일, 발효식품(예: 사우어크라우트, 김치, 케피어, 미소) 및 고섬유질 식품은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도록 도우며 건강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모든 미국인에게 김치와 된장을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문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김치 섭취를 권장한다는 것은 마치 제 세대의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숨기려고 했던 한국 문화가 이제는 인정받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 일부도 김치를 먹고 있으며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MA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조르주 생피에르(Georges St. Pierre)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합니다. "나는 냉장고에 항상 김치 한 병을 넣어 둔다."

우리는 문화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지만, 문화는 말 그대로 우리의 DNA의 일부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은 어떤 문화, 부족, 혹은 공동체에 속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화가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들며, 때로는 우리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전할 때 문화적 장벽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 자체도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질문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 어느 시점에서 복음을 타협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율법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강해해 나가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과 제자들은 박해가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라고 계속 만류했지만, 바울은 언제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자신을 괴롭히게 될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에 대해 퍼지고 있는 거짓말과 맞서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21

"그들이 당신에 대하여 들은 말은, 당신이 이방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우리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단순히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까지 버리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유대 문화를 포기해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친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유대인에게도 자기 문화를 버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유대교의 문화는 바울도 존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특별히 할례를 예로 듭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할례를 폐지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없애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 민족의 문화로 존중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지만, 디도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 것은 에베소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었고, 반대로 디도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음으로써,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받았음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바울이 이제 유대교를 없애려 한다" 라고 비난한 것은 전적으로 거짓이었습니다.

로마서 9:3

"나의 형제 곧 육신의 친척들을 위하여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민족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도 사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그 사랑을 넣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21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죄를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세상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으로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시는 삶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파송하는 교회에 있든, 파송받아 나가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노인들과는 안 맞아." "나는 아이들과는 못 일해." "나는 한국 사람들을 싫어해." "나는 멕시코 사람들과만 잘 지내." "나는 공화당을 못 참아." "나는 민주당을 못 참아."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스스로를 한정짓습니다. 문화와 민족에 따라 삶을 구획하고 경계를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화를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문화들 가운데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독실한 바리새인이었고, 평생 이방인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을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도 어떤 문화,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에게든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 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역을 통해 그 사랑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24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여 머리를 깎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들은 말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이것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나실인 서원의 일부였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유대 문화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들은 이곳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에게도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요구한 것은 바울이 정말 유대인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문화, 곧 바울 자신의 문화에 대한 사랑을 보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표현은 종종 공개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셨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준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해." "가정을 위해 해 준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해." 라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어머니나 형제자매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는지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딸을 꼭 안아 주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야기해 준 것이 언제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 저와 제 가족은 여러 목회자 가정들과 함께 가족 DTS(제자훈련학교)에 참여하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사랑받는지 말할 수 있었고, 그것은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고,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 온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부가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두 사람 모두 평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던 때가 바로 결혼 서약을 하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DTS 전까지는 사역하시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아내의 눈을 제대로 바라본 적조차 거의 없었고,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의 눈을 바라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달리, 사랑은 갑자기 사랑벌레(love bug)에 물리거나, 벼락을 맞듯이 통제할 수 없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속 가꾸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끝났다." 라는 말은 마귀가 퍼뜨린 가장 큰 거짓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에서 멀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사랑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영적·육체적 학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혼 사유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 "화해할 수 없는 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s)"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옵니까? 특히 주일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자주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매주 서로 만나야 합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지만, 매주 만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 선교를 감니까? 저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냥 물품과 돈만 보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고, 우리가 보냈다는 것만 알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할수도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할 때도, 예배할 때도, 선교를 갈 때도,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도록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기 싫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걸음을 떼고 싶지 않다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먼저 행동하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출애굽과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은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가르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주석은 나흐손 벤 아미나답(Nachshon ben Aminadav)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먼저 바다에 발을 내디뎠고, 그 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령께서 먼저 선교의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도록 감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감동이 없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이어 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과 친절의 행동은 언제나 긴 기도나 치밀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하면 됩니다. 물론 선교 여행을 위해서는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섬길 때에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즉흥적으로 행동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어제 아침 시간이 있었다면, 왜 우리와 함께 City Hope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축복하고, 식료품을 나누며, 기도와 격려를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바로 그 지점이 복음과 세상의 문화가 만나는 접점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면서 원문의 구조와 의미에 가깝게 직역했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은 복음이 세상의 문화와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복음을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정결 의식에 참여하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은 이러한 의식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타협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문화가 복음과 충돌했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의 한 예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나바호 목사가 제게 전해 준 것입니다. 한 나바호 남성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 삶에서 메디슨맨과 함께하는 원주민 의식에 깊이 참여했으며, 그 의식에는 여러 춤과 몸동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기쁨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몸동작을 통제하지 못했고, 원주민 의식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선교사 목사는 그를 매우 심하게 꾸짖었고,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교회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 남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 복음과 그의 문화가 만나는 교차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문화는 그의 DNA에 너무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몸을 통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그가 몸을 움직일 줄 아는 유일한 방식은 원주민 의식에서 했던 것처럼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 어쩌면 영들을 불러냈을지도 모르는 동일한 춤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가르치고, 훈련하며, 그의 삶에 자신을 쏟아붓고, 성령께서 그를 온전히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방식으로 예배하도록 하시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남자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화와 복음이 만난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그와 함께 제자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전도와 제자훈련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한 형제가 수년간의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금주한 지 하루가 되었다면, 저는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물과 술 없이 보낸 하루하루를 함께 축하할 것입니다. 그에게 성자의 성부에 대한 영원한 복종 교리에 관한 성경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자신에게로 이끄셨는데, 그 가정이 가난 속에 살며 다음 끼니가 어디에서 올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들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걸어감으로써 사랑해야 합니다. 고난은 믿음의 일부이므로 굶주림을 통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이며 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싸움을 위해 담대함의 영을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참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과 세상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먼저이며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의미한 것입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 그릇과 다리로 사용될 것입니다.

나는 그 양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만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가족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데려오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말했고 바울이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BVC가 우리의 아웃리치와 전도를 통해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회와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을 통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함께 걸으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 안의 마땅한 자리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를 위한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 안으로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셨고, 우리 각 사람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셨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양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으며,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며,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밖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